

효성, 타이어코드 공급계약 체결

Goodyear 해외공장 4곳 인수 2007년 가동 ... 32억달러 달해

효성은 타이어 생산기업인 미국 Goodyear에 32억달러 상당의 타이어코드를 장기 공급하기로 했다.

Goodyear는 세계 29개국, 100여개 사업장에서 타이어를 비롯해 고무 가공제품, 화학제품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고용인력이 8만여명에 이른다.

효성은 또 Goodyear의 자회사인 Utica 지분을 100% 인수해 Utica가 타이어 생산에 집중하기 위해 매각하기로 한 미주, 남미, 유럽 등지의 타이어코드 공장 4곳을 인수해 2007년 초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효성은 9월7일 미국 오하이오주 애크런에 있는 Goodyear 본사에서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계약을 체결했다.

효성은 타이어코드의 대륙별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동시에 현재 25%에 머물고 있는 세계 시장점유율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려 타이어코드 세계 1위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다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효성이 인수하는 Goodyear의 타이어코드 공장은 미국 앨라배마주 디케이터, 뉴욕주 유틀카, 브라질 아메리카나, 룩셈부르크 콜마버그 등 4개 지역에 있는 공장들로 폴리에스터(Polyester) 타이어코드를 비롯해 Aramid, Rayon, 나일론6, 나일론66, 유리섬유 등 다양한 소재의 타이어코드를 생산하고 있다.

효성은 현재 국내 울산공장을 비롯해 미국 버지니아주 스캇츠빌의 폴리에스터 타이어코드 공장, 인디애나주 스캇츠버그의 스틸코드 공장, 중국 자싱 Polyester 타이어코드 공장, Qingdao 스틸코드 공장 등 국내외 생산기지를 가동하고 있다.

효성은 타이어 관련 분야 단일 공급계약으로는 최대인 Goodyear와의 공급계약과 해외공장 인수에 따라 장기간에 걸친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하고, 타이어코드의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존 폴리에스터 타이어코드와 나일론 타이어코드, 스틸코드 뿐만 아니라 첨단 신소재인 아라미드와 고속 주행용 타이어 소재인 레이온 등 한층 다양한 타이어코드 시장에 진출하는 성과도 얻었다고 효성은 덧붙였다.

효성은 2002년 Michelin과 폴리에스터 타이어코드 장기 공급계약(7년간 3억5000만달러)을 맺은 데 이어 2005년에는 또다시 Michelin과 10년간 6억5000만달러 규모의 스틸코드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잇따라 장기 공급체결을 성사시켜왔다.

효성 관계자는 “타이어코드는 자동차 타이어의 내구성, 주행성,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들어가는 보강재로 효성의 2005년 타이어코드 부문 매출액은 7000억원 가량”이라고 소개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 기자) <저작권 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9/07>